저출산 고령화 문제 종교계가 풀자

불교 개신교 가톨릭, 대책시민연대 발족

국가적 위기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3대 종교가 나섰다. 높아진 이혼율, 늦어진 혼인연령, 낙태로 인한 생명경시와 출산기피 등으로 고령화 사회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6월 29일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위원장 이기헌 주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정사역위원회(위원장 송길원 목사)는 3대 종교를 대표해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정사역위원회 위원장 송길원 목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총무 송영오 신부 등이 3대 종교 대표로 나섰다.

김인숙 원장 · 이기헌 주교 · 송길원 목사 등이 공동대표체제로 운영되는 시민연대는 정부정책 감시, 저출산 해결 범국민 캠페인, 저출산 대책 각종 포럼 운영, 가정문화운동, 낙태반대운동 및 입양장려활동 등에 적극 나선다.

이날 종교대표들은 "국가의 미래 재앙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시민운동을 펼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시민연대를 만들게 됐다"며 "행복한 가정문화확산, 생명경시 문화 배격, 생명존중문화 확산,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제안 활동 등을 시민연대가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시민연대는 시민단체와 유관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해 외연을 확장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시민운동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3대 종교대표들이 모여 저출산문제 해결에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오른쪽부터 김인숙 원장, 일관 스님, 송길원 목사, 송영오 신부.

이에 따라 9월경 각 종단 수장과 함께 저출산 포럼 및 시민대회를 개최해 국민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시민연대의 활동 외에도 각 종교별 교리의 차이를 인정해 종단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글 · 사진=강지연 기자

팔만대장경 동판간행 범국민추진委 출범

'해인사 팔만대장경 동판 간행 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이하 동판추진위)는 6월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에서 동판추진위 이수성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어낸 우리민족이 동판으로 팔만대장경을 다시 복원해내는 것은 세계평화를 지키고 국가를 빛내는 일"이라며 "총 3질을 제작해 1질은 해인사에, 1질은 북한에, 1질은 간행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인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이날 치사를 통해 "옛 선조들이 염원했던 것처럼 동판 간행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돼 국민대화합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자"고 강조했으며,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도 출범식사를 통해 "시대의 간곡한 염원을 담아 완벽한 장경판 보전을 위해 동판 간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조계종 민추본 창립 5주년 기념 법요식 · 통일포럼 열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법요식과 통일포럼이 열렸다.

6월 20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본부장 명진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5년간 남북공동법회와 신계사 복원불사, 단청 복원불사 등을 진행해왔다"며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이 바탕이 된 상호 존중은 남북통일의 귀중하고 힘 있는 씨앗이 되며, 앞으로 그 싹을 키워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은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의로운 실천행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며 그 길에서 언제나 귀 단체와 함께 할 것"이라며 축하전문을 보내 왔다.

한편 이날 법요식에서는 민추본 기관지 <통일정토>가 1년여 만에 복간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유철주 기자

사형제 · 뇌사 관련 워크숍

불교적 생명윤리관을 정립하기 위해 구성된 불교생명윤리 연구위원회(공동위원장 정념 · 백남석, 이하 연구위) 1차 워크숍이 7월 1일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구위는 8월 중순 생명조작 분야와 낙태 분야를 주제로 2차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거기에 특별할인과 푸짐한 경품까지?!
확 달라진 여시아문!
지금 서둘러 가보세요!
www.yosiamun.com

6월 25일 금강산 신계사를 방문한 정동채 장관(맨 왼쪽)이 제정 스님과 환담하고 있다.

정부, 금강산 사찰 복원 지원

정동채 장관, 신계사 방문…의지 밝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금강산 4대 사찰 복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다시 밝혔다.

정동채 장관은 6월 25일 신계사를 방문해 현지에서 상주하고 있는 도감 제정 스님에게 "신계사, 장안사, 유점사, 표훈사 등이 복원되면 남북불교교류는 한층 발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제정 스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신계사에 좀 더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배려해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신계사 방문에는 이보경 종무실장,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한국관광공사 강광호 국내진흥본부장 등이 동행했다. 유철주 기자

"종교간 대화와 교류로 평화를"

조계종 종교평화委 발족

"우리사회 종교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종교평화를 이루고 참종교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상임위원장 손안식, 이하 종평위)가 6월 29일 발족을 선언하고 종교평화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서울 송현클럽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손안식 상임위원장은 "종평위의 사회적 불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화합과 평화로 회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도 "종평위 발족으로 종교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며 모든 생명의 본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도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종평위가 독립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종교간 화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평위는 지도위원단과 공동위원장단, 전문위원단, 집행위원단으로 구성됐으며, 종교편향 신고센터 운영, 종교평화 교육 활동, 100인 회원조직 사업, 종교평화 매뉴얼 발간 등의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손안식 위원장 인터뷰 14면

유철주 기자

"불교대 발전 책임 종단에 있다"

동국대 제3차 공청회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위원장 영담)는 6월 28일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불교학연구활성화'를 주제로 제3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주제 '불교대학의 연구현황 및 연구성과 제고방안'을 발표한 최병헌 교수(서울대 국사학과)는 "불교대학 발전의 책임은 불교종단에 있다"고 지적하고 "종학연구를 중심으로 조계종 종립대학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제2주제 '우수교원 및 연구인력 확보방안'을 발표한 심익섭 교수(동국대 행정학과)도 "동국대 불교대학이 한국 불교의 요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데 실패한 때문"이라며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석좌교수제 등 다양한 초빙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 불교학과)는 "동국대 불교대학이 종립대학으로서 종학연구 기능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종립대학의 역할 모색을 위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제4차 공청회는 9월 '불교대학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조용수 기자

환경연대 · 인드라망 캠프

여름방학을 맞아 불교단체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학교와 여름캠프를 마련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7월 26~28일 여주 신륵사에서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지난 4월 부안 내소사에서 열린 봄캠프에 이어 진행되는 여름캠프는 △자연놀이-신륵사의 나무와 풀 △발우공양 △생태지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720-1654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도 8월 4~7일 남원 지리산생명문화교육원에서 여름가족캠프를 실시한다. 가족캠프는 도법스님 생명탁발 순례기 법문과 생태농사체험 등으로 꾸며진다. (02)733-1884 유철주 기자

"포교활동 안하면 종교단체 아니다"

금산군 유권해석 논란

'포교활동을 하지 않은 사찰은 종교단체로 볼 수 없다?'

충청남도 금산군이 납골당 설치허가를 요청한 서대사(주지 철영)에 대해 "포교활동을 하지 않은 사찰은 종교단체로 볼 수 없으며 납골당 설치가 목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이덕우 계장은 6월 30일 "납골시설 설치가 목적인 사찰을 종교단체로 볼 수는 없다"며 "납골시설에 따르는 편의시설 등도 갖추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대사는 5년 전 건립돼 총화종 종단에 등록돼 있는 사찰로, 금산군의 해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대사 측은 "포교활동을 해온 사실을 입증할수 있으며, 문광부에 등록돼 있는 종단의 사찰을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명우 기자

재심호계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재심호계원은 종단 내의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우리 종단의 최상위 사법기관입니다. 종단이 이러한 권위를 갖는 기관을 종헌으로 설치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승단의 법질서 유지와 올바른 승풍의 확립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재심호계원은 최근 들어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종도들로부터 의혹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22일 개최한 32차 회의에서는 중앙종회 특위로부터 징계 회부된 서울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에 대해 또다시 심판 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3년 전에 재심호계원에 심판이 상정되었으나 이번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한 것입니다. 재심호계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한마디로 무소신 무원칙, 그리고 계파간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의 심판을 연기하고 있는 재심호계원의 행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166회 임시중앙종회에서는 중앙종회법 제79조에 의거, 이 문제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호계원장 출석요구서'를 제출하려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회분위기를 경직시키고,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일단 다음 회기로 이 문제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재심호계원은 최근 개최된 위원회에서 다시 심판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종도들이 부여한 책임과 직무를 유기하는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재심호계원의 이 같은 파행운영은 종단의 종법질서를 혼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종무행정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종법을 어겼거나 종단을 분란으로 몰고 가는 일부 종도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하지 못하면 종단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심호계원은 어떤 경우라도 문중이나 계파, 개인적 이해관계 등 반종법적 문제와 연계해서 심판을 연기하거나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은 모두 재심호계원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일승회 화엄회 소속 초선의원들은 종법질서 확립을 통한 종단중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서 우리는 특별한 이유 없이 3년간 심판을 보류한 재심호계원의 위원들에 대해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3대 종회의원을 비롯한 종단의 중진스님과 종도들께서는 우리들의 이 같은 애종적 결단에 동의하고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종도들께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종단을 위하는 길인지를 깊이 성찰하시고 종단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9(2005)년 6월 30일

조계종중앙종회 종책모임 일승회 · 화엄회 초선의원

동광, 도문, 무자, 법경, 법광, 보경, 성월, 성직, 원정, 의연, 일문, 정도, 정안, 초격, 토진, 현공 (이상. 가나다 순)